



타이난 뷔페



태국은  
닭고기 요리 천국

## ‘타이난 뷔페’



조해인 기자

독자 여러분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하고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으로 신혼여행지를 정하게 된 건 단순히 여행사의 권유였지만, ‘월간 닭고기’ 원고를 신혼여행지에서 준비해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닭고기 산업이 발달했으니만큼 태국의 닭고기 요리를 주의깊게 살펴보기로 하고, 평소 식탐을 충분히 발휘해 태국 전통음식을 아무 거리낌없이 먹고 별 탈 없이 잘 다녀와서 이렇게 원고를 올립니다.



면과 함께 볶은 닭고기 요리

## 타이난 뷔페는 닭고기 뷔페?

이번 원고 주제로 선택한 음식점은 태국 푸켓에 있는 타이난 뷔페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곳이 닭고기 뷔페가 아닌 가 할 정도로 닭고기 요리가 대부분이었고 돼지고기 요리가 2~3개, 쇠고기 요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가 큰 뷔페에서도 닭고기 요리가 2~3가지 정도로 간소한 경우가 많은데 닭고기 요리가 육류요리의 주종을 이루는 태국을 보면서 닭고기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훈제닭고기, 여러 가지 닭고기 볶음, 닭고기 조림, 닭고기 커리, 닭고기 튀김 2종류, 닭고기 파스타, 닭고기 육수로 낸 쌀국수까지 닭고기 요리가 셀 수 없이 많았다.

취재를 위해 꼭 먹어봐야 했기에 그날 저녁에 닭고기 요리만 정말 많이 먹었다. 다른 사람들이 닭고기만 먹는 필자를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했지만 수많은 닭고기 음식 앞에서 필자는 설새없이 맛보고, 사진을 찍어야 했다.

처음에는 사진을 찍을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그 많은 종류의 음식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봐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도 태국 사람들은 닭고기 음식을 정말 많이 먹는 것 같다.

##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선택한 닭고기

현지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태국 사람들은 생선튀김과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다. 열대기후에 속해 땀을 많이 흘리는 태국 사람들은 무기질,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야 하는데 거기에 닭고기가 적격이라는 것이다.

사실 닭고기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 있고 소나 돼지고기와 비교해 볼때 비타민 A로 변하는 레티놀 또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메치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은 다른 고기보다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삼계탕을 많이 먹는 것처럼 태국에서는 상시 닭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다.



닭고기 요리들



후라이드 치킨



① 치킨 커리    ② 피망과 함께 볶은 닭고기 요리    ③ 닭고기 야채볶음  
 ④ 칠리와 바질을 넣은 닭고기 볶음    ⑤ 소스에 볶은 닭고기 요리    ⑥ 로스트 치킨

### 새로운 미각을 깨운 태국식 치킨 커리

타이난 뷔페 음식 중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은 닭고기 커리였다. 향신료 맛이 상당히 강해서 다른 사람들은 입에도 안 대던 음식이지만 전통 토기에 보글보글 끓고 있던 치킨 커리는 아들이야들 한 닭고기 살과 향신료 맛이 가득했다.

그 음식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갖가지 향신료를 구해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생전 처음 먹었던 맛, 없었던 미각을 깨워주었던 태국 전통 음식이었다.

그리고 닭고기를 잘게 썰어 칠리와 바질을 넣은 닭고기 볶음은 바질의 향과 매콤한 칠리고추가 잘 어우러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반면 닭고기 튀김은 우리나라에 비해 더 많이 튀겨서 고기가 좀 더 딱딱했다. 태국 닭고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컸기 때문에 튀긴 음식보다 볶거나 끓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 김치같은 닭고기

대부분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음식을 먹었지만, 어설피 한식이나 양식보다는 태국 현지식이 가장 맛있었고 특색이 있었다.

그리고 태국식으로 식사를 할 때면 매번 닭고기 요리가 빠지지 않았던 점은 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닭고기 요리를 많이 먹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닭고기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태국 여행을 통해서 태국 음식을 많이 맛볼 수 있었지만, 태국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더 저렴한 난전에서 파는 태국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다. 아마도 한국 여행객이 많았던 푸켓이었기에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는지. 🇹🇵